

보도시점

2026. 6. 30.(화) 12:00

6. 30.(화) 석간

배포

2026. 6. 30.(화) 09:00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 및 결의대회 참석

- 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 대회, 중앙정부 방역정책 설명, 지방정부별 맞춤형 방역대책 발표, 방역 토론 등 추진(6월 29일~6월 30일)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6월 29일(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협의 및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천 결의를 다지는 한편, 현장 방역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발굴·개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방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첫날에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등 참석자가 합동으로 ‘차단방역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역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역 결의를 다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다짐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농식품과 기후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지방정부별로 그간 추진한 맞춤형 방역관리(미흡 및 우수사항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평가 및 개선방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내용, 기후부는 야생동물 방역관리 등 정부정책 소개

행사 둘째날 참석자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추진 과정의 미흡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준 방역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차단방역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역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방역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민관이 하나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서기관	이병용 (044-201-2555)

